

탈근대에 있어서 대안적 비교문예학의 가능성 모색*

허 창 운
(독어독문학과 교수)

머리말

21세기에 즈음해서 오늘의 우리 사회는 실로 격변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제기적의 풍요가 순식간에 파탄의 벼랑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거짓과 진실이 엇갈리는 아노미현상이 확산일로에 있다. 다양한 가치관이 복잡하게 뒤엉키고 세대간의 격차가 괄목할 정도이다. 특히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구에서는 냉전시대가 종결되었고 우리에게서는 문민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많은 것이 변화했다.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세계는 급기야 인터넷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구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자비한 자본주의와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래의 유교적 전통과 홍수처럼 밀려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외래문화의 혼재 속에서 온갖 다양성과 무차별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기 위해서는 우선 객체구성으로서의 <탈근대 Postmoderne>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개념정의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서구의 계몽주의적 <근대 Moderne>가 대략 1600년 이래 특히 사회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비판받는 데서 야기되는 문제의 복잡성에 근본이유가 있다. 게다가 그러한 성격의 비판은 근원적으로 近代의 보편주의를 억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문예학적이고 문학적인 비판은 우선적으로 1850년 내지 1880년 이후의 미학적 근대와 동의어로 간주되는 문학적 <모더니즘(근대주의) Modernismus>을 겨냥한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문학적 모더니즘은 철학과 사회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근대의 후기근대적 자기비판”의 모습을 취한다.¹⁾ 그런가 하면 자기비판으로서의 모더니즘은 감쪽같이 脫近代의 사고로 이행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탈근대적 사고는 그런 자기비판을 충분히 포괄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탈근대주의자들이 (후기)근대적 자기비판을 불충분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질, 헤르만 브로흐, 엘리엇, 프루스트, 막스 베버, 아도르노 같은 다양한 근대주의자들이 고수하고

* 이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1) Peter V. Zima: *Moderne/Postmoderne*, Tübingen 1997, S. XI 이하 참조.

있는 근대의 열쇠개념들, 즉 개인주의, 주체, 진리 및 유토피아 등을 더 이상 간단히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脫近代가 자신과 친족성이 있는 후기근대(모더니즘)에서 생겨남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어떤 의미에서 근대적이고 모더니즘적인 문제와의 단절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유수한 사회학자, 철학자, 문인들이 근대의 핵심 개념들에 의심을 품고 그 개념들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는 세계가 새롭고 복수적이며 다형적인, <무차별성 Indifferenz>에 의해 각인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문제의 근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IMF시대”에 임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력 앞에 굴절되는 전통가치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환가치의 무자비성에 아연해진다. 급기야 가치의 교체가능성으로서의 무차별성은 경우에 따라 “무관심”과 “이데올로기화”의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즉 탈근대적 문제성은 곧 이 두 극단에 의해 틀지워지는데, 그 하나는 시장법칙들이 촉진시키는 무한정한 복수화의 관용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맹목주의이다. 아무튼 리오타르 J.-F. Lyotard 같은 탈근대적 사상가들이 특수화와 복수화 경향이 지니고 있는 <양가성 Ambivalenz>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차별성의 속성을 철저히 투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로 특수화와 복수화는 교체가능성의 원칙과 획일화원칙의 지배를 받는 보편주의의 억압적 메커니즘에 저항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는 있지만 정치적 종교적 윤리적 미학적 특수성들의 극단적 <복수주의 Pluralismus> 역시 교체가능성으로 귀결되고, 그럼으로써 이데올로기적 반작용을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대안적 비교문예학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바람직한 이데올로기비판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²⁾

아울러 이러한 이데올로기비판은 이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서로 화해시키려는 노력도 경주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종의 대화적 이론이 제안되는데, 그러한 화해가 지닌 진리계기는 그것의 타자, 곧 극단적 구상의 異他性과 대결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상이한 과학자집단과 그들의 사회어와 <述話 Diskurs>³⁾들이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비로

2) 이하의 서술은 지마의 저술 Peter V. Zima: *Komparatistik*, Tübingen 1992을 해당 대목에 따라 그 요지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3) 필자가 <Diskurs> 개념을 굳이 <述話>로 번역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번역이 지마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의 개념은 주로 <서술적 구조>와 직결되어 있다. 술화는 서술하는 말, 즉 서술담화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서술적 narrative>이라는 형용사는 비단 어떤 사건의 진술 내지 이야기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설명의 의미까지도 포괄한다. 반면에 하버마스가 말하는 <Diskurs> 개념은 두 명 이상의 주체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계기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을 술화와 구별하기 위해 <談論>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로 한다(페터 V. 지마/허창운 역: *문예 미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3, 473면 참조). 독일어에서는 지마의 개념과 하버마스의 개념이 외관상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지마는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해주고 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Diskurs’란 규범의 일반화 가능성, 어떤 진술이나 행동의 규범적 타당성을 주제로 한 대화를 뜻한다. 나 자신의 Diskurs 개념은[...] (그레마스, 프리에토, 마랭 등에서 유래한) 기호학적 개념으로서, 문장 단

소 <間述話的 interdiskursiv> 진리추구를 비롯해서 간술화적 진리계기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문학을 대화적 구성체로 이해하는 문학관은 여기서 말하는 대안적 비교문예학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 대화적 문학개념과 비교문예학

이데올로기적 술화나 이론적 술화는 특수한 사회 언어학적 상황하에서의 다른 술화들에 대한 간텍스트적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시 하나의 술화적 형식에만 집착하지 않는 문학텍스트도 다른 텍스트들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응답은 그 텍스트들을 논평하거나 비판하며 또한 혼성모방하거나 비유담으로서 회화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문학의 “시적 메시지”를 간텍스트적 생산으로 보기보다는 특별한 언어형식으로 정의하는 독백적 문학개념도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문학개념은 지난날 야콥슨 Roman Jakobson에 의해 제안된 바 있는데⁴⁾ 이 정의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려는 대화적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시적 메시지”에 대한 야콥슨의 기능적 정의에 대해 특히 외제니오 코제뤼 Eugenio Coseriu는 간텍스트적으로 반응한다. 그는 시적 텍스트가 자기 자신을 지시한다는 테제와 대화적 문학개념은 결코 모순적이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순수문학이란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간텍스트적 언어형식들을 다 받아들이는 언어적 보편실험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순수문학어는 다른 언어사용들 중의 한 경우라기보다는 모든 언어적 가능성들의 실현인 언어 그 자체로서 나타난다.”⁵⁾

이처럼 코제뤼의 문학관은 결국 바흐친 Michail M. Bachtin과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의 대화적 문학관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문학텍스트는 결코 창문없는 單子나 産物이 될 수는 없고, 오직 생산과정 내지 간텍스트적 과정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은 결국 작가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지난날이나 당대의 텍스트, 즉 구비적으로나 문자로 전승된 텍스트에 반응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예컨대 바흐친은 장편소설을 서사시와 수사학의 언어 및 특히 민속적 반권위적 하위문화로서의 카니발의 언어를 가공하는 하나의 장르로서 묘사한다.⁶⁾ 이로써 장편소설은 이질적인 언어형식들이

위를 넘어서는 의미 및 서술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진술주체이며 특정한 주체와 대상들이 그 속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Diskurs 개념과 나의 Diskurs 개념은 서로 아무 관련도 없다”(페터 V. 지마(허창운/김태환 공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1997, 182면 각주 75참조).

4) R. Jakobson, *Linguistik und Poetik*, in: J. Ihwe(Hrsg.),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Bd. 1, Frankfurt 1972, S. 108 참조

5) E. Coseriu: *Thesen zum Thema ‘Sprache und Dichtung’*, in: W.-D. Stempel, *Beiträge zur Textlinguistik*, München 1971, S. 184.

수용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텍스트로 가공되는 술화적 과정으로서 대화적 간텍스트적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간텍스트성은 단순히 인용이라기보다 픽션적 술화의 진술주체가 수행하는 언어적 상황의 가공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문예학적 관점에서는 간텍스트적 과정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과거나 현재의 다른 문학텍스트에 대한 주체의 반응으로서의 “내적 간텍스트성”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체를 통한 비문학적 텍스트와 술화의 가공을 뜻하는 “외적 간텍스트성”이다. 내적 간텍스트성과 외적 간텍스트성은 함께 작용할 수 있기에 문학은 문학적 진화 속에서의 생산으로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사실로서도, 즉 정치적, 법률적, 과학적, 철학적, 상업적 사회어와 술화에 대한 반응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학적 자율성의 미학이 지닌 결정적 결점은 그것들이 비문학적 콘텍스트를 전반적으로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을 간텍스트적 작업으로 이해하는 대화적 문학관은 한편으로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 때 사회는 언어적 층위에서 사회 언어학적 상황으로 묘사된다. 즉 사회적 입장, 사회적 관심과 갈등들은 사회어와 술화를 거쳐서 문학텍스트 속으로 유입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화적 문학관은 문학텍스트를 일의적으로 해석하고 개념화하려는 타율적 환원주의적 미학을 의문시 한다. 왜냐하면 문학적 실험은 언어로서의 사회에 대한 반응이라는 의미에서 사회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지만, 개념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문제 그 자체를 주제화하는 문학적 실험은 다의적으로 의미해석이 가능한 구성체로서 사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적 문학관에 기반하는 비교문예학은 진보하는 사회적 분업의 한 양상인 학문적 분업원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이한 언어영역과 상이한 문화에서 생겨난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적 비교는 대상을 하나의 언어나 문화에 한정시키는 국민문학적 협애회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과 북미 비교문예학의 창시자들은 이미 국제적 간문화적 맥락에서만 문학이 이해될 수 있다는 명제에서 출발한 바 있지만, 이 단초가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다는 데서 대안적 비교문예학이 거론되기에 이른다.

II. 대안적 비교문예학의 위상

II.1. 비교문예학과 일반 문예학

문학이 범주적으로 음악, 영화, 회화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경우 비교문예학자는 실로 문학영역을 초월하는 대상들과 관계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문예학은 분명 학문적 분업에 직면해서 철학적 미학의 상속자가 된다가나 포괄적으로 예술의 비교이론으로 변신할 수는

6) M.M. Bachtin: *Probleme der Poetik Dostoevskijs*, München 1971, S. 121 참조.

없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비교하는 문예학이고, 따라서 <언어적 텍스트 verbale Texte>와 관계한다. 텍스트이론으로서의 비교문예학은 픽션적 텍스트와 이것의 상이한 콘텍스트에 전념하는 일반 문예학에 편입되어 있다.⁷⁾

비교문예학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두 개 혹은 다수의 문학이나 문학조류 혹은 비언어적 텍스트도 연구하는지를 묻는 물음보다는 어떤 이론적 방법적 도구로써 자신의 문제에 접근하느냐를 묻는 물음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 문예학은 비교문예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레퍼터리로 규정될 수 있다. 비교문예학자는 일반 문예학의 도움을 얻어 그것의 틀 내에서 어떤 이론과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대상영역을 구획하여 연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모든 이론적 방법론적 예단이 동시에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미학적 결단을 뜻한다는 점을 깊이 숙고해야만 한다. 자신이 만약 비판이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다분히 칸트주의쪽으로 기우는 체코 구조주의자들의 이론이나 뤼시앵 골드만류의 마르크시즘적 구조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와는 다른 사회적 입장에 선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일반 문예학의 이론적 레퍼터리는 순전히 도구적으로(이 이론이 무엇을 할 수 있나?)뿐 아니라, 대화적 비판적으로(이 이론은 어떤 입장과 관심을 표현하는가?)도 고찰되어야 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질적인 영역으로 나타난다.

여하튼 중심에 위치하는 물음은 문학사회학적, 문학심리학적, 기호학적 및 텍스트언어학적 이론과 방법들이 어떻게 문학적 비교를 구체화하고 섬세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컨대 로트만 Jurij Lotman류의 문화기호학과 텍스트기호학은 특히 결실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이한 문화에서는 상이한 문학개념과 상이한 텍스트개념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특정 유형의 문화에서는 오직 口演된 텍스트들만이 텍스트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반면 다른 유형의 문화에서는 오직 문자화된 텍스트만이 텍스트로 인정받는다.⁸⁾ 로트만의 설명에 따르면 결정적인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작업이 시작되는 이론적 맥락이다. 게다가 비교문예학을 포함해서 모든 텍스트학은 사회과학, 즉 언어학, 인류학 및 사회학에 뿌리 내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7) 따라서 이러한 구상의 비교문예학은 방 띠젼Paul Van Tieghem의 <일반문학 littérature générale>과는 공통성이 없다 이것은 <비교문학 littérature comparée>과 대립적으로 정의된다. "littérature comparée"는 양자간의 비교(Shakespeare와 Goethe, 혹은 Dostoevskij와 Nietzsche 등)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littérature générale"는 "유럽의 고전주의", "유럽의 낭만주의"처럼 문학사조 전반이나 다수의 문학 등을 포괄한다. 방 띠젼은 전공의 대상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이론 및 방법의 생생한 상호관계, 즉 한 특정 대상이 이론의 틀 내에서 방법의 도움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탐구되는지를 묻는 물음을 시야에서 놓치고 만다(Paul Van Tieghem: *La Littérature comparée*, Paris 1946 참조).

8) J. M. Lotman: Text und Funktion, in: P. V. Zima(Hrsg.), *Textsemiotik als Ideologiekritik*, Frankfurt a. M. 1977, S. 152 참조.

II.2. 실천적 비교작업 - 유형학적 비교와 발생학적 비교의 상호보완성

인류학, 정치학 및 사회학에서와 같이 비교문예학에서도 최소한 두 가지의 비교유형들, 즉 “유형학적 비교”와 “발생학적 비교”를 서로 구분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⁹⁾ 접촉연구로서의 발생학적 비교는 접촉을 통해, 즉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생겨나는 유사성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유형학적 비교의 틀내에서는 아무런 접촉없이 유사한 생산조건이나 수용조건에 기반해서 생겨나는 유사성을 연구한다.

전통적인 비교문예학, 특히 언제나 경험주의적인 경향을 지녔던 프랑스의 비교문예학은 지금까지 접촉연구로서의 발생학적 비교를 선호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경험들에 따르면 발생학적 관계보다는 바로 유형학적 관계가 비교문예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유사한 제도와 유사한 텍스트구조의 발생을 비롯해서 한 작가의 다른 작가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주는 것은 역시 유사한 사회적 언어적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과 문학 영역에서는 접촉과 영향이 종종 비슷한 사회적 언어적 발전과의 연관관계에서 이루어짐이 자명해진다. 가령 말라르메의 상징주의와 미학주의가 게오르케 Stefan George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유는 19세기 후반부에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가 각기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히 사이 좋게 장려한 공리주의, 대중영합주의 및 국수주의에 대해 특히 비판적 지식인집단들이 항거했기 때문이다. 말라르메와 게오르케는 강화되는 문화산업과 상업주의적 언론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상업화된 언어에 대해 공히 대항했던 것이다.

유사한 사회적 정치적 구도들, 즉 유형학적 전제조건들은 나아가 영향의 수용에 안정마춤의 사회적 언어적 상황이 생겨난 세르비아와 체코에서도 프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이 효력을 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프랑스 상징주의자들의 이러한 영향은 오직 유사한 사회적 상황과 공통된 정치적 관심사의 고려에 근거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세르비아가 이미 1차세계대전 이전에 그리고 체코는 1918년 이후에 프랑스와 유지했던 밀접한 정치적 관계의 결과로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적 비교문예학의 일차적인 과제는 예컨대 니체가 바로야 Pio Baroja, 카뮈 A. Camus 및 로렌스 D.H. Lawrence에게 미친 영향을 사회적 언어적 콘텍스트에서 설명함과 동시에 그런 식의 발생학적 비교를 유형학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및 영국의 사회적 상황간의 유사성이 비로소 니체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고,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상호작용하지 않은 상기한 작가들간의 친화력이 부분적으로는 유형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9) Viktor Žirmunskij: Über das Fach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in: G. R. Kaiser(Hrsg.), *Vergleichende Literaturforschung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1963-1979*, Stuttgart 1980 참조.

II.3. 비교문예학과 민족어문학

세기전환기의 독일에서는 비교문예학과 민족어문학(Nationalphilologie)간의 수많은 논전이 구체적으로 비교문예학과 독어독문학(Germanistik)간에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비교문예학과 민족 문예학을 서로 대질시켜 어부지리를 얻고 싶은 유혹이 생길 만도 하다. 예컨대 독어독문학자들은 연구대상의 성격상 민족적 틀을 깨고 서로 비교하면서 대상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족어문학의 영역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독일 중세학은 볼프람 폰 에센바하 Wolfram von Eschenbach의 작품을 크레티앙 드 트로와예 Chrétien de Troye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해석하고자 할 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¹⁰⁾

이처럼 오직 비교문예학적 틀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현상과 사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선적으로 국민문학의 콘텍스트에서만 설명되어야 할 사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 Don Quijote』에서 수많은 고대의 영향들이 입증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설은 우선적으로 스페인의 기사소설에 대한 회화적 반응으로서 카스티리아 스페인적 문학발전의 틀내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독일의 질풍노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셰익스피어의 현재화로서 그리고 고착화되고 있는 프랑스 의고주의에 대한 논전적 반작용으로서도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독일 계몽주의와의 대립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프랑스언어권에서의 예로서는 “누보로망”을 들 수 있는데, 뷔토르, 시몽 및 로브그리에의 누보로망은 포크너, 카프카, 조이스 및 베케트의 실험들이 없었더라면 발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로브그리에와 리카르두의 이론적 평설들(Alain Robbe-Grillet: Pour un nouveau roman, 1963; Jean Ricardou: Pour une théorie du nouveau roman, 1971)은 어쨌거나 극명하게 이 새로운 소설형식이 일차적으로는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와 카뮈의 기술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전적 반작용으로서, 또한 마르셀 프루스트와의 논쟁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¹¹⁾ 따라서 민족적이고 국제적인 콘텍스트는 서로 교차하는 것이기에 상호 분리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왜 비교문예학과 민족어문학이 서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III. 사회기호학적 비교문예학

이론적 출발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이 비효율적이었던 지난 날의 비교문예학적 실상을 직시하고 그 대안적 비교문예학의 구상을 우리는 이제 지마 P.V. Zima에 의거해

10) E. Köhler: *Ideal und Wirklichkeit in der höfischen Epik*, Tübingen 1970, S. 188 u. 243 참조.

11) Peter V. Zima: *Komparatistik*, Tübingen 1992, S. 13 참조.

서 사회기호학적으로 구체화해보기로 한다.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문학텍스트들은 궁극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적 언어적 배경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언어적 관계란 결코 부차적이고 부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심심찮게 이론적 본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이런 점은 많은 경우 외국어의 특수성이나 특이성과 맞물려서 해당 어휘의 번역이 쉽지 않은 “낯선” 이론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비교문예학자가 이론도 문화특유의 구성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는 거의 모든 이론들이 보편타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문화적인 성격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의 비교작업이 갖는 간문화적 성격은 비교문예학의 사회과학적 의미를 결정하는 핵심인자가 된다. 예컨대 프랑스의 초현실주의가 독일 낭만주의와 정신분석학과 독립해서는 거의 이해될 수 없는 것처럼 독일 마르크시즘 역시 영국의 정치경제학 및 프랑스의 정치적 계몽주의와는 거의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유럽 낭만주의나 유럽 아방가르드에 관한 비교연구에서처럼 이론들의 비교에서도 문화특유한 것과 간문화적이고도 보편적인 것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를 이론가들이 비교문예학적으로 성찰하는 곳에서만 이론적 대화, 즉 그것의 진행과정을 통해 이질적인 입장들이 상호 관련을 맺는 대화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비교문예학의 이론적 학문론적 의미는 이론이 지닌 문화특유한 민족적 성격과 간문화적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인식하고 그것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대화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 때문에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론적 술화의 이데올로기적 전제조건들 때문에도 성사되지 않았다. 만약 비교문예학이 자신도 문학과 이론에서의 문화적 언어적 간섭현상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비교연구의 문화비판적 메타이론으로 이해한다면, 그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야 할 이데올로기비판의 보완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들(이를테면 파시즘적이거나 마르크시즘적 이데올로기들)도 역시 문화특유한 것임과 동시에 또한 초문화적이고 국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특수한 것(지역적인 것, 민족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국제적인 것) 사이의 긴장권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기호학적 비교문예학은 이데올로기비판과 연관해서 비판적 메타이론으로서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1. 언어적 상황 : 사회어와 술화

문학텍스트뿐 아니라 이론적(학술적) 텍스트도 특수한 언어적 상황에서 생겨나고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의 역사적 성격은 사회적 발전의 한 특정 시점에 특수한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문학적, 학술적 언어들이 함께 작용하는 데서 표출된다. 즉 그들은 서로 모방하고, 인용하며, 비유하고 또 대화적·논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언어를 언어적 상황으로 묘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합리주의적

(데카르트적) 언어학에 반하는 것이다. 이 언어학에서는 집단적 언어체계인 <랑그 langue>를 정태적 단위로서 묘사하고 개인적 언어행위인 <파롤 parole>과는 대립적인 입장에서 관찰한다. 그러나 바흐친과 볼로시노프 Valentin N. Voloshinov는 집단적 랑그와 개인적 파롤의 이러한 합리주의적 분리에 반대하며, 역사적 안목에서 언어체계를 갈등모델의 틀로서 고찰한다. 말하자면 개인은 특별한 언표를 창출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언표는 특정한 집단적 관심을 표출하고, 그래서 다른 관심과 갈등을 일으키며, 동시에 언어체계는 역사적·사회적 단위로서, 즉 “언어적 상황”(바흐친)으로서 변하는 것이다.¹²⁾

따라서 언어체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시 언어 전체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집단특유의 관심이 반영된 역동적(역사적·사회적) 구도 내지 상황이기도 하다. 언어가 집단적 현상이라는 사실, 즉 소쉬르와 뒤르켐의 의미에서 “랑그”로서의 언어와 “집단적 관습”으로서의 언어뿐 아니라 집단적 언표의 총화로서의 파롤의 영역 역시 그러하다. 여기서 파롤은 그레마스에 연결해서 “사회어” 내지 “집단어”라 칭해진다. “사회어들은 일종의 2차적 언어들이다. 이들은 의미론적 편차들에서 인식할 수 있는데, 이 편차를 통해 그것들은 서로 대립한다[...]. 이들은 또 자신을 수반하는 사회적 共示義들에서도 인식할 수 있다[...]. 사회어들은 사회적 술화들의 기반에 놓여 있는 사회적 분류들로서 구성된다. 사회어에 대한 연구는 사회기호학이라는 특수한 분과학문의 과제이다.”¹³⁾

그렇다면 도대체 “술화”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술화란 문장초월적인 의미론적·서술적 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사회어에 속하며 따라서 특수한 2차적인 모델화 체계에 귀속되고 특정한 사회 언어학적 상황에서 다른 술화(사회어)들과는 대화적·논쟁적인, 즉 간텍스트적 관계에 놓인다. 술화는 모두가 하나의 텍스트이다. 하지만 의미론적·서술적(문장초월적) 구조를 보여주는 수많은 종류의 텍스트(예컨대 콜라지나 사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가 곧 술화일 수는 없다. 고립된 문장도 하나의 텍스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술화는 아니다. 오직 문장들의 연쇄만을 술화적 배열이라 칭할 수 있다.

자기가 속한 집단과 사회어의 이해관계 및 인식관심과의 일치하에 술화의 진술주체는 통용어의 특정 단어들을 선택하고 이것을 특정한 <유관성 Relevanz>의 기준과 일치시켜 분류함으로써 특수한 방식으로 그것을 정돈한다. 진술주체가 단어들을 선택하는 유관성의 기준들은 사실상 분류작업과 공동으로 술화의 의미론적 기반을 결정한다. 진술주체가 정신분석학적 사회어의 틀 속에서 논전을 편다면, 그는 “무의식”이나 “억압”과 같은 어휘소들을 지지하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유관성이 있다”고 선언하는 “의식적/무의식적”이라는 기초적인 의미론적 대립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 대립은 술화의 전체적 분류체계를 구성하며 무의식 개념에 수렴될 수 있는 하나의 전체적 단어부류, 이를테면 “연

12) M.M. Bachtin: Das Problem von Inhalt, Material und Form im Wortkunstschaffen, in: ders., *Die Ästhetik des Wortes* (Hrsg. R. Gröbel), Frankfurt, Suhrkamp, 1979 참조.

13) A.J. Greimas, J.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1979/1986. S. 354f.

상”, “잠재적 내용”, “오이디푸스콤플렉스”, “오이디푸스콤플렉스적 단계” 등을 기초한다. 이 단어부류는 그레마스가 개발한 구조 의미론에서는 의미론적 <동위체 현상 Isotopie>이라 칭해진다. 이는 “진술로서의 술화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분류소들의 통사적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¹⁴⁾ 형성된다. <분류소 Klassen>은 진술에서 실현되고 지배인자와 함으로써 그 진술의 의미론적 일치성 내지 동위체 현상을 구성하는 일반개념 내지 상위개념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술화는 하나의 의미론적·어휘론적 구조를 훨씬 초월하는 서술적 구성체이다. 이 구성체 속에서는 특정한 서술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주체행역자와 객체행역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 마르크시즘적 술화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시민계급”이 “사회”나 “인간”(객체, 객체행역자)을 장악하기 위해 “공산주의”(사역자)와 “자본주의”(반사역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행동하는 주체(“주인공”)와 반주체(“반주인공”)로서 등장한다. 학술적 술화에서는 반주체의 기능이 “이데올로기”에 할당되고, 주체의 기능은 “과학”에 할당될 수 있으며, 또 “진리”는 이 경우 이론이 분분한 객체행역자로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으로서 “행역자”라는 명칭은 인간 개체뿐 아니라 집단적 심급(이를테면 정당들)과 “진리”나 “과학” 같은 추상물에도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행역자는 단순히 “주인공”이나 “인물”의 동의어로 이해될 수는 없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술적 기능인데, 이것이 술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가치는 그 술화의 의미론적 기초에 의존한다. “자본주의/공산주의”라는 의미론적 대립에서 출발하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술화에서는 프롤레타리아적 심급이 주체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민계급과 모든 시민적 행역자들은 부정적 혹은 폄하적으로 共示義化된 동위체인 “자본주의”에 정착되고 “반주체”로 정의된다. 따라서 픽션적, 이론적 혹은 역사적 “이야기”의 진행은 (행역자적 층위에서는) 진술주체의 의미론적 결정에 좌우된다. 말하자면 그 주체가 비판적 합리주의자들처럼 이데올로기와 과학간의 대립을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지, 아니면 레닌처럼 시민적 이데올로기와 프롤레타리아적 이데올로기(즉, 프롤레타리아의 “과학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유관성이 있다고 선언하는지의 여부에 의존한다.

이제 여기서 극히 도식적이고 초보적인 방식으로 묘사된 이 술화개념은 비교문예학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비교문예학의 객체구성도 역시 어휘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서술적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단순한 예로서 <시대구분 Periodisierung>은 비교문학사로서의 비교문예학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대구분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유관성의 기준과 분류작업에 해당하는 진술주체의 의미론적 활동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낭만주의 Romantik>, <근대 Moderne> 혹은 <탈근대 Postmoderne>와 같은 시대 정의는 한 특정 진술주체가 “정당성이 있다” “옳다” 혹은 “참되다”라고 간주하는 유관성의 기준과 분류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시대구분에는 객체내재적인 기준들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모든 시대는 특정한 술화적 처리방

14) 같은 책, 197면

식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단지 가능한 하나의 객체구성으로 나타날 뿐이다.

Ⅲ.2. 민족문화와 문예학적 이론형성

“문화”와 “이데올로기”는 동의어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하나의 동일한 민족문화 안에서 상이한 이데올로기나 이데올로기적 사회어(술화)들이 민족문화의 역사적 맥락을 특징짓는 사회 언어학적 상황에서 함께 작용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모든 민족문화에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사회어와 술화들이 지배인자로서 등장하는 반면에 다른 언어형태들은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배면에 머물게 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언어학적 상황이 곧 사회어와 술화들의 유일무이한 구도라는 사실이다. 사회어와 술화들은 로트만의 말처럼 <문화텍스트 Kulturtext>라고도 칭할 수 있기에 그것들은 특수한 역사적 순간의 민족문화에 상응한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언어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상업적, 문학적, 정치적 및 다른 집단어들로써, 그리고 비언어적 영역에서는 건축, 기술, 미술 등등의 기호와 상징들로써 구성되는 역동적 체계라는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모든 사회어 내지 모든 술화는 자신의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 환경과는 간텍스트적 층위에서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강제에 노출된다. 이 적응과 상호작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당 사회어 내지 술화를 간문화적 층위에서, 즉 자기와 다른 민족문화의 콘텍스트에서 들을 때 인지하게 된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사회기호학적 비교문예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물음은 간단히 답할 수 있다. 다종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상이한 문화들을 잘 아는 비교문예학자가 낯선 이론과 자신의 이론이 지닌 문화적 언어적 제약성을 성찰할 수 있는 한, 특권적 입장에 서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독일의 문예학적 토론이 예컨대 60년대와 70년대의 <신비평 Nouvelle critique>을 둘러싸고 벌어진 프랑스의 논쟁과는 다른 사회언어학적 맥락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것이다. 당시 서독에서의 “방법토론”은 해석학, 비판이론, 비판적 합리주의 및 마르크시즘이 주도한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쉬르의 기호학,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비롯해서 샤르 모롱의 <심리비평 Psychocritique>, 뤼시앵 골드만의 인간적 마르크시즘 및 더 강력하게는 루이 알튀세르의 과학주의적 마르크시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했던 것이다.¹⁵⁾

반면에 문예학 이론들의 사회적, 역사적 및 언어적 상황을 성찰하는 일을 포기하는 비교문예학자는 자신의 단초가 지닌 하나의 본질적인 장점을 방기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이론 일반을 언어적 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또 그것들을 특별한 문화적 사회언어학적 상황의 결과로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버리고 만다. 이론이란 이론가가 그것의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발생연관을 고려할 때만이 구체적인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 Peter V. Zima: Komparatistik, Tübingen 1992, S. 78이하 참조.

따라서 비교문예학자는 문학적 실천으로서의 창작과 문예학적 이론형성으로서의 ‘대안적’ 비교문예학의 상관관계를 비교 성찰함으로써 왜 바르트와 크리스테바의 아방가르디즘적 기호학이 미국의 실용주의(Ch.S. Peirce)와 분석철학에서 출발하는 막스 벤제Max Bense 같은 독일의 아방가르디즘적 기호학과 구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민족적 이론형성(프랑스의 기호학, 독일의 수용미학)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일반 문예학자와는 달리 비교문예학자는 문예학적 이론형성의 과정을 국제적 맥락에서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상이한 문학적 조류(낭만주의, 아방가르드) 내지 사회언어학적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비교가능해지고 또 이론적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이론적 술화들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이 술화들의 생성과 의미는 상이한 문화적 언어적 연관관계에서 비교문예학적으로 성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대화는 언어적 문화비판적 반성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개념들(예컨대 “기대지평”이나 “인식론적 단절”)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단지 가능한 성격에 관한 수밀일관된 숙고만이 대화의 상대방에게서 자신들이 사용한 전문어와 술화들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제약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못된다는 문화비판적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 고유의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고 자기 고유의 술화의 독백적 요구가 해석학적 의미에서 의심스럽게 여겨질 경우에만 이론적 대화는 성공하는 것이다. 그 순간 타자적인 것, 낯선 것이 자기 고유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동시에 자기 고유의 문화에 “독백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구속성을 대화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Ⅲ.3. 비교문예학의 이데올로기비판

이론가요 메타이론가로서 비교문예학자는 1차적으로 이론과 문학의 문화적 언어적 제약성의 탐구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론적 문학적 술화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간섭현상을 따지는 물음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한 언어상황에서 간텍스트적 대화적으로 상호 반응하는 사회어와 술화들은 전문어적이거나 미학적(문학적)인 성격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성격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술화는 항상 역사적 사회언어학적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오직 이 상황과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비교문예학의 기본과제 중의 하나는 언어적 상황을 이데올로기적이고 전문어적 술화들의 생성맥락으로서 재구성함과 아울러 이데올로기적 언어, 전문어 및 문학적텍스트들이 어떻게 간텍스트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상호교차적으로 제약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제 비교문예학적 이데올로기비판을 위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언어들(사회어와 술화들)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함께 작용하며 또 이 유일한 역사적 구도로부터 어떤 문학이론들(이론들 일반)이 생겨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아무

튼 이론적 술화의 진술주체는 자기 이론이 특별한 언어적 상황에서 유래했음을 마땅히 숙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데올로기적 술화의 주체와 구별된다.

이러한 천착에 연결하면 이데올로기와 이론간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이해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 차이는 주로 과학이론, 이론적 사회학 및 사회기호학에 의해 연구되지만 역시 이데올로기비판적 비교문예학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과학의 모든 이론은 동시에 일반적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이다. 사회어와 술화로서의 이론은 의미론적 영역(유관성, 분류)과 통사적·서술적 영역(행역자모델, 서술적 연쇄)에서 반영되는 집단적 입장과 관심을 표현한다. 문예학이나 사회학의 이론들은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의 의미에서 “입지구속적”이다.¹⁶⁾ 이데올로기적(마르크시즘적,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으로나 전문어적(수용미학적, 정신분석학적)으로 제약된 그러한 인식관심은 정당하며 일반적 의미에서 (집단입장 내지 사회어로써) 이론과 이데올로기의 뒤영김을 (이를테면 마르크시즘에서)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가능한 - 항시 특수한 - 입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식을 방해하는 술화적 처리방식의 합주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술화적 층위에서 일종의 제한적 혹은 부정적 이데올로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개념은 한편으로 일반적 이데올로기 개념,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이론과 서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 이데올로기 개념은 모든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로서의 이론)가 특수한 집단입장을 언표하고 다양한 술화들을 특별한 유관성의 기준, 분류 및 서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산출하는 사회어라는 점을 말해줄 따름이다. 반면에 제한적 이데올로기 개념은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술화적 배열로서 정의한다. “그러나 이 배열의 진술주체는 의미론적 이분법과 그것에 상응하는 서술적 처리방식(주인공/대척자)의 틀내에서 논증하면서, 자신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처리방식을 반성하고 그것을 열린 대화의 대상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 그 대신 그 주체는 자신의 술화와 사회어를 유일하게 가능한 (참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또 이것을 독백적으로 자신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지시체의 전체와 동일시한다.”¹⁷⁾

이데올로기적 주체와는 반대로 “이론적 술화의 진술주체는 의미론적 이분법을 변증법적 양가성으로 용해시키고 자기 고유의 특수한 입지와 자신의 술화적 처리방식(유관성의 기준, 행역자모델, 서술적 도식들)을 성찰함으로써 이 둘을 간술화적 열린 대화의 대상으로 삼는다.”¹⁸⁾ 따라서 비판적·이론적 술화는 점진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술화의 제한적 부정적 정의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한 술화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적·비판적 비교문예학의 핵심부분을 형성해야 한다.

16) K. Mannheim: Strukturen des Denkens, Frankfurt a. M. 1980, S. 111 참조.

17) Peter V. Zima: Ideologie und Theorie. Eine Diskurskritik, Tübingen 1989, S. 256(허창운/김태환 공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414면) 참조.

18) Peter V. Zima: Ideologie und Theorie, op. cit., S. 56(번역본, 93면).

맺는말

이제 이론의 이데올로기비판적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변증법적 양가성은 이데올로기적 이원론에 반대한다. 이데올로기적 주체는 흑백논리에 기반해서 예컨대 독재와 무정부주의, 파시즘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과학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론적 주체는 대립의 통일성을 요청하고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19세기의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어떻게 독재와 무정부주의가 서로 뒤엉켜서 상호 제약하는지, 또 무솔리니의 집권과정이 구체적으로 파시즘적 운동과 사회주의적 운동 사이의 변증법의 틀내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프로이트, 포퍼의 경우 어떻게 과학적 인식의 추진력 내지 제어력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변증법적 양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론적 반성이다. 비교문예학자는 낯선 이론과 자기 이론의 술화적 처리방식 및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관해 숙고할 뿐 아니라 자기 문화와 낯선 문화의 특수성을 과학적 토론의 주제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문예학적 영역에서는 이론적 반성이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획득한다. 동시에 비교문예학자는 이데올로기와 이론을 줄곧 문화의 사회 언어학적 맥락 속에 가져다 놓으려고 애쓴다. 따라서 비교문예학은 문화비판으로서, 언어맥락과 문화맥락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회학적이고 과학이론적인 이데올로기비판을 (비판이론과 비판적 합리주의의 의미에서) 보완한다.

벌써 이러한 이유에서도 비교문예학적 반성은 과학적, 문예학적 대화의 기본전제가 된다. 이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어들의 의사소통으로서 이루어질 때, 즉 대화에 참여한 모든 술화와 사회어들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피조건성이 인지되고 고려될 때만이 그 대화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대화적 이론으로서의 비교문예학에 부여되는 과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 틀조건들뿐 아니라 문화적 틀조건들도 탐구하는 일이다. 이는 이질적인 이론적 술화 내지 사회어들간의 결실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문예학자들이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틀조건들과는 무관하게 입장을 취하고 천부적으로 이성을 갖춘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상호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주의적 이성주의적 환상이 사라질 때만이 이론적 대화는 구체화되는 결실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교문예학적 성찰과 대화성은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모든 비교문예학적 이론에게도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제약성과 이데올로기적 제약성을 거론하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참 고 문 헌

- Bachtin, M. M., Probleme der Poetik Dostoevskijs, München 1971.
- Bachtin, M. M., Das Problem von Inhalt, Material und Form im Wortkunstschaffen, in: ders., Die Ästhetik des Wortes (Hrsg. R. Grübel), Frankfurt, Suhrkamp, 1979.
- Coseriu, E., Thesen zum Thema 'Sprache und Dichtung', in: W.-D. Stempel, Beiträge zur Textlinguistik, München 1971.
- Durisin, D., Vergleichende Literaturforschung. Versuch eines methodisch-theoretischen Grundrisses, Berlin, Akdademie-Verlag, 1976.
- Dyserinck, H., Komparatistik. Ein Einführung, Bonn, Bouvier, 1991(3.Aufl.).
- Greimas, A.J./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e de la theorie du langage, Paris 1979/1986.
- Jauß, H. R., Ästhetische Erfahrung und literarische Hermeneutik, Frankfurt a. M., Suhrkamp, 1982.
- Kaiser, G. R.(Hrsg.), Vergleichende Literaturforschung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1963-1979, Stuttgart, Metzler, 1980.
- Köhler, E., Ideal und Wirklichkeit in der höfischen Epik, Tübingen 1970.
- Lotman, J.M., Text und Funktion, in: P. V. Zima(Hrsg.), Textsemiotik als Ideologiekritik, Frankfurt a. M. 1977.
- Mannheim, K., Strukturen des Denkens, Frankfurt a. M. 1980.
- Rüdiger, H.(Hrsg.), Komparatistik. Aufgaben und Methoden, Stuttgart, Kohlhammer, 1973.
- Scheunemann, D., "Komparatistik", in: D. Harth, P. Gebhardt(Hrsg.), Erkenntnis der Literatur. Theorien, Konzepte, Methoden, Stuttgart, Metzler, 1982.
- Van Tieghem, P., La Littérature comparée, Paris, A. Colin, 1946.
- Warning, R.(Hrsg.), Rezeptionsästhetik, München, Fink, 1975.
- Weisstein, U., Einführung in die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Kohlhammer, 1968.
- Zima, P.V., "Die Komparatistik zwischen Ästhetik und Textsoziologie", in: Sprachkunst, Nr. 1, 1985.
- Zima, P.V., Ideologie und Theorie, Tübingen, Francke, 1989(허창운/김태환 공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1997).
- Zima, P.V., Literarische Ästhetik, Tübingen, Francke, 1991(허창운 역: 문예 미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3).
- Zima, P.V., Komparatistik, Tübingen, Francke, 1992.
- Zima, P.V., Moderne/Postmoderne, Tübingen, Francke, 1997.

Žirmunskij, V., “Über das Fach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in: G.R. Kaiser(Hrsg.), Vergleichende Literaturforschung in den sozialistischen Ländern 1963-1979, Stuttgart, Metzler 1980.

■ Zusammenfassung

Auf der Suche nach einer alternativen Komparatistik in der Postmoderne

Tschang-Un Hur

Diese Arbeit ist ein Versuch, das theoretische Defizit der vergleichenden Literaturwissenschaft neueren Datum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modernen Soziologie, Semiotik und Linguistik zu ergänzen und auszugleichen. Zugleich soll nachholend und im Rahmen der aktuellen wissenschaftlichen Grundlagendiskussion ein alternatives Modell der literarischen Komparatistik kritisch-dialogisch angestrebt werden. Grundsätzlich geht es darum, dem Vorschlag von Peter V. Zima entsprechend, eine soziosemiotische bzw. textsoziologische Komparatistik in Grundzügen darzustellen, deren Gerüst sich hauptsächlich auf die Basis der Kritischen Theorie der früheren Phase stützt und mit Baukomponenten aus der Soziosemiotik Greimasscher Provenienz inhaltlich komplettiert wird. Der Vorzug einer solchen Auslegung (der Komparatistik) ist besonders in ihrer interdiskursiven und ideologiekritischen Grundhaltung zu suchen, insbesondere vor dem Hintergrund so mancher Modeerscheinung der Postmoderne.

Der Versuch, letztendlich die Komparatistik sozialwissenschaftlich zu fundieren und auf eine spezifisch gesellschaftskritische Position auszurichten, ist zugleich eine Aufforderung zum theoretischen Dialog. Ein solcher Dialog läßt sich aber nur dann bewerkstelligen, wenn jeder Diskursteilnehmer seinen Standpunkt klar bezeichnet und die Partikularität oder Kontingenz seines Diskurses verdeutlicht. Es ist selbstverständlich, daß der literarische Vergleich auch anders als nur kritisch-theoretisch und soziosemiotisch aufgefaßt und durchgeführt werden kann, um so mehr als der in dieser Studie vorgestellte Ansatz lediglich eine kontingente Möglichkeit darstellen möchte. In dieser Absicht ist auch die titelseitige Formulierung "Auf der Suche nach...." im herausfordernden Sinne zu verstehen.

Da eine theoretische und methodologische Erneuerung wie Konsolidierung der Komparatistik nur möglich erscheint, wenn ihr Objektbereich nicht ausufert, ist hier der Bereich "Literatur und andere Kunstformen" nicht berücksichtigt. Aus Kohärenzgründen wird die Komparatistik im Wortsinne als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aufgefaßt: nicht weil eine "vergleichende Theorie der Künste" in der Postmoderne ausgeschlossen wäre, sondern weil diese im Interesse einer beschleunigten wissenschaftlichen Arbeitsteilung eigentlich nur interdisziplinär, d. h. mittels enger Zusammenarbeit mehrerer Wissenschaftler zu bewältigen ist.

Ob dieser Entwurf im relevanten Forschungsbereich fruchtbar aufgenommen werden kann, hängt schlußendlich und grundsätzlich davon ab, inwieweit sich die vergleichende Praxis der soziosemiotischen Komparatistik als ergiebig erweist.